



# 비폭력대화(NVC)모델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강현진<sup>1</sup> · 김주희<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강사, <sup>2</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Comprehensive Sex Education Program Based on Nonviolent Communication Model

Kang, Hyun Jin<sup>1</sup> · Kim, Ju Hee<sup>2</sup>

<sup>1</sup>Clinical Lecture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Sex education should be given priority to address dating violence. Comprehensive sex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based on a nonviolent communication model between couples for the smooth resolution of problems with the opposite sex.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Comprehensive Sex Education for unmarried couples in their 20s-30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n sex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competence. **Methods:** This study developed a total of six web-based sex education sessions. A comprehensive sex education program combined with nonviolent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UNESCO Sex Education Guidelines. A pre- and post-equivalence control design was used to provide moderation-based sex education to compare the effects on gende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dis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Results:** We developed a comprehensive sex education program for couples that took three minutes per episode, on a web-based basis. Sex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nd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pre- and post-tes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The program of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troduce Korea to comprehensive sex education, which has already been shown to be effective through numerous verification processes abroad and will provide assistance in forming future relationships between lovers.

**Key Words:** Comprehensive sex education, Nonviolent communication, Program development, Relationship, Coupl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18,671건으로 형사입건 10,245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폭행 상해 7000건 이상, 살인(미수, 기수포함) 42건으로 보고되어있다[1]. 2019년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주요어: 포괄적 성교육,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관계, 연인

\* 이 논문은 제1저자 강현진의 석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orm kyunghee University.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KHSIRB-18-067

Corresponding author: Kim, Ju Hee (<https://orcid.org/0000-0001-6586-7244>)

College of Nursing,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02447

Tel: +82-961-0461 Fax: +82-961-9398 E-mail: juheekim@khu.ac.kr

Received: 16 March 2020 Revised: 12 May 2020 Accepted: 16 May 2020

으로 운영하여 총 4,185건의 신고와 2,052명을 형사입건하였고 그중 20대(35.7%), 30대(24.5%)로 60% 이상이였다[2].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20대는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주요 발달과업이다[3]. 연인간 데이트폭력의 시작은 이후 연인이 결혼하여 가정폭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되물림 되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4]. 따라서 혼전 20-30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매우 필요하다[5].

과거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주로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포괄적이고 검증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체 생식기, 임신 및 수정과정의 설명, 금욕과 절제 위주의 성교육이 이루어져 왔다[6]. 청년기 성인은 그동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실제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 고민의 의논 대상을 친구나 선후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전달될 소지가 많다[7]. 성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은 국가 정책으로 실행되지 않고 여성 단체나 민간 성교육 센터에서 해결하고 있다. 미래의 성교육은 미디어의 활용이나 교육 참여자 주도하에 진행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맞춤형된 공공주도의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성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 평등과 다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관계에 기여하는 기술과 태도를 훈련하며, 부모, 친구, 교사, 다른 성인 및 지역사회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 문화적 가치 및 전통적 신념에 대해 반영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8].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and Organization (UNESCO)에서 2018년 출간된 포괄적 성교육 지침은 사람들이 관계, 성에 대한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윤리적 가치관 및 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8]. 또한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을 통해 주요개념, 주제 및 예시, 학습 목표에 대한 의견 등을 그룹의 회원들에 의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과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 성교육 지침은 전문가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과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여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인식, 인권 성에 대한 부모와의 소통, 자기 효능감, 콘돔사용 인식, 성 지식, 성 건강 및 성 보건 서비스 성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미 국외의 미국이나 유럽,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8-11].

본 연구는 미혼 20-30대의 데이트폭력 예방과 청년기의 이성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포괄적 성교육과 연인 간 친밀감 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인 간 친밀감의 형성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인 의사소통 능력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연인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중재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2003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프로그램이다. 비폭력대화의 정의는 분노를 자아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친선을 복돋우는 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대화방식이다[12]. 이러한 비폭력대화는 연인관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 방법으로서[13], 선행 연구에서도 비폭력대화가 의사소통과 개인 관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국내 비폭력대화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 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연인과의 갈등 해결과 친밀감 목적, 데이트폭력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의사소통 문제라고 보았을 때 비폭력대화 모델을 활용한 연인간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효과가 검증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비폭력대화 모델을 융합시킨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연인관계인 미혼 20-30대 커플을 위한 비폭력대화 모델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혼 20-30대 연인을 위한 비폭력대화 모델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개발한 프로그램이 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폭력대화 모델을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후를 비교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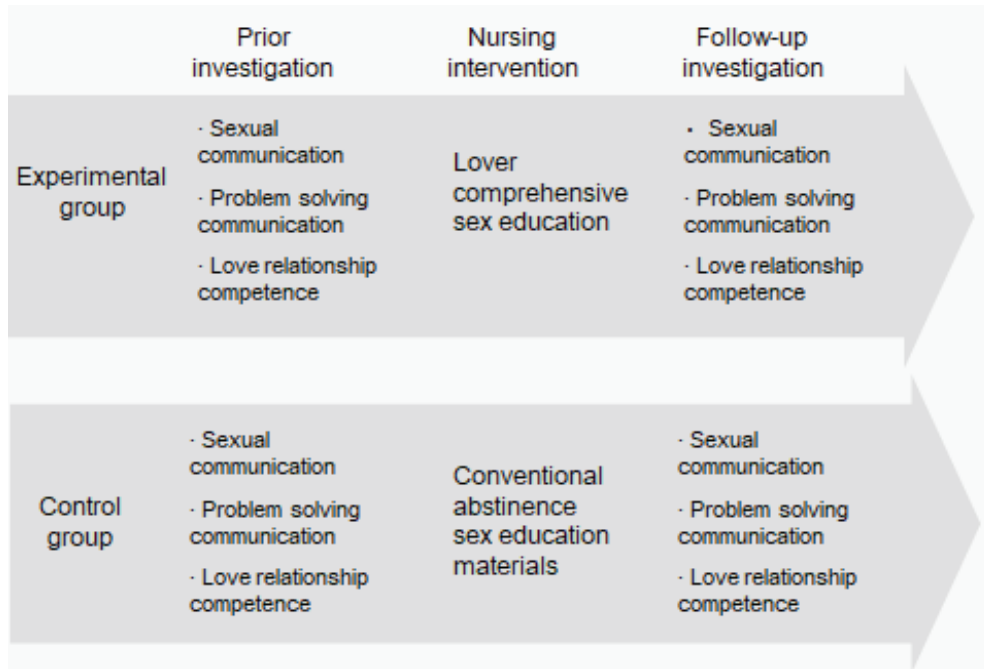


Figure 1.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대한민국 20-30대 미혼 연인이며 근접모집단은 서울 소재 K대학 교내에 재학 중인 미혼 대학생 연인들과 서울 소재 D종합병원 내 연인관계 유지 중인 미혼 직원과 상대 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부터 9월간 전단지 배포와 웹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 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연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f) 0.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계산한 결과 총 필요한 연인 수는 총 24쌍(실험군 12쌍, 대조군 12쌍)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27쌍(실험군 14쌍, 대조군 13쌍)을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 후 배정은 선착순 실험군 14쌍 배정 후 다음 선착순 13쌍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오프라인 교육 참여하지 못한 실험군 1쌍과 1회부터 참여하지 못한 대조군 2쌍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24쌍(실험군 13쌍, 대조군 11쌍)이 본 연구에 최종 참여자가 되었다.

3. 연구도구

1) 성 의사소통

성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Hutchinsonrhk Cooney [15]가 부모 자녀와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조승희[15]가 다시 수정하여 사용한 연인 간 성 의사소통 척도를 사

용하였다. 성과 성에 관련된 신체구조, 피임, 에이즈, 콘돔, 적절한 성관계의 시기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연인 간 성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 간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을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적인 성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승희[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는 이화자[14]가 부부 집단 상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하위척도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인 간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로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와 아니오 두 가지 중 선택하며 이 척도는 전체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원활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 점수가 61점 이상이면 연인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확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두 연인 모두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화자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3) 연인관계 유능성

연인관계 유능성 측정도구는 김경미[17]가 개발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사려 깊고 통찰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자신 및 연인을 존중하며 연인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관계 효능감, 관계 유지행동, 갈등 관리행동, 불안감 해소의 4개 요인으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정서, 행동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고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 4. 윤리적 고려

미혼 20-30대 연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문을 하는 연구로 윤리적 고려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KHSIRB-181067). 심의 후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서면 동의한 20-30대 연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참여 허락한 20-30대 연인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료사용의 제한, 진행방식, 비밀보장, 참여자의 선택권과 참여 중단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참여에 따른 예상되는 이익이나 위험 또는 불편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참여와 설문을 마친 대상 연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 5.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설계과정에 있어 학습방법, 즉 학습자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유지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DDIE [18] 모형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 1) 분석(Analysis)

본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하여 기존 성교육자료와 포괄적 성교육자료,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선행연구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통하여 포괄적 성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포괄적 성교육 요구도 조사는 20대 대학생 4인과 직장인 1인, K대학 성평등상담실 전문 상담원 1인이 참여하였다.

요구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초, 중

고등교과 과정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 교실 TV 화면을 통해 일방적인 비디오 매체 수업을 통해 전달되는 1-2회의 수업 과정을 경험하여 성교육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둘째, 20대 성인이 된 후 성교육 특강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여성학 관련 전공자의 경우 양성평등 교육을 경험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성교육 특강을 경험하지 못했고 특강이 거의 없었다. 셋째, 기존의 우리나라 성교육은 절제중심의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절제중심의 성교육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넷째, 페미니즘 교육은 필요하며 성범죄 등의 문제들을 예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한다. 여섯째,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매 주마다 강의실을 찾아 교육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위와 같은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연인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학습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성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간호학 전공 기초 지식과 (사)푸른 아우성에서 성교육 전문 강사와 성상담 전문 과정을 이수하였고 비폭력대화 과정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한국비폭력대화 센터에서 비폭력대화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수료, (사)이하 가족성장연구소의 아하 존중대화(associate certified coach: ACC) 1을 2회 수료, 영킴 풀기 과정 수료하였다.

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교과 과정 프로세스로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8]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포괄적 성교육 지침의 사용에 대해 한국 UNESCO에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는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과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비폭력대화의 프로그램에 연구자가 수료하고 연구한 비폭력대화기반 아하 존중대화 ACC 1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비폭력대화기반 아하 존중대화 ACC 1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아하 가족성장연구소의 허락을 받았다.

##### 2) 설계 (Design)

각 회기별 프로그램 포함목록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나온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하였으며[8],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은 (사)이하 가족성장 연구소의 비폭력대화기반 아하 존중대화 ACC1을 기본 교재로 선정하였다. 다른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네덜란드의 대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인 Long Live Love (LLL)는 제목과 그림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19].



프로그램의 설계는 포괄적 성교육 요구도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30대 성인의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처음 접근을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강의실이라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고려한 웹 기반으로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함에 있어서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Simon은 청소년을 포함 청년기에는 온라인으로 성 정보를 접하며 성병 및 임신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웹 기반 증가는 성 건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20]. 웹 기반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였을 때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육 후 궁금한 점이 있어 교육을 다시 받고 싶어지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쉽지 않은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교육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한 신경림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21]. 또한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웹 기반으로 하였을 때 성교육 전달은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UNESCO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다[8]. 위의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를 참고하여 웹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웹 기반 프로그램은 6회기로 구성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존 UNESCO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총 세션 수는 8회기이며 나선형 구조로 된 교수체제로 반복학습으로 인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설계되었다[8].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 전체 회기를 삭제나 순서 변경 없이 구성하였다. 2018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회기의 일부 삭제나 주요메시지 제거, 주제 제거 등은 위험한 적응증이다. 프로그램 순서나 주제 변경 없이 내용을 보다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언어나 이미지 또는 문화적 참조를 변경해도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8]. 비폭력대화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기존 국내 한국 비폭력대화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폭력대화 1단계 프로그램이 6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 사용된 비폭력대화 응용 프로그램인 아하 존중대화 ACCI의 프로그램 역시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6회기의 기존 프로그램 손상 없이 도입시켜 최종적으로 웹 기반 제작으로 6회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다. 추가구성으로 비폭력 대화 증재에 있어 대화 실습을 중요시하는 기존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1회

의 비폭력대화 실습중심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최종 설계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추천되며 본 연구에서 한국 UNESCO의 사용 허락을 받은 프로그램인 UNESCO 가이드라인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8]과 연구자가 수료하고 연구에 사용 허락을 받은 비폭력대화 기반 프로그램 아하 존중대화 ACCI를 활용하여 미혼 20-30대 연인을 대상으로 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웹 기반 6회와 오프라인 교육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기로 설계를 구성하였다.

### 3) 개발 (Development)

#### (1)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1회기에 포괄적 성교육과 비폭력대화 이해하기와 포괄적 성교육의 1단계인 관계가 포함된다. 2회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의 2단계 가치, 권리, 문화와 성, 성별 이해하기와 비폭력대화의 마음과 소통, 비폭력 대화모델 이해하기로 구성되었다. 3회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의 3단계인 폭력과 안전유지로 폭력, 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신체 무결성, 정보 및 정보의 안전한 사용과 비폭력대화의 소외와 단절을 가져오는 말, 소통의 4단계 관찰,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4회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의 건강을 위한 웰빙 생활과 비폭력대화의 소통의 4단계 중 열망과 요청으로 구성되었다. 5회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의 인체 및 성

**Table 1.** Lover Comprehensive Sex Education

Lover comprehensive sex education session	Session contents
1 <sup>st</sup>	1. Comprehensive sex education? 2. Relationship 3. What is nonviolent communication (NVC)?
2 <sup>nd</sup>	1. Values, rights, culture and sexuality 2. Understanding of gender 3. NVC mind and communication NVC model
3 <sup>rd</sup>	1. Violence and safety 2. NVC 4 levels of communication observation, feeling
4 <sup>th</sup>	1. Skills for health and well-bing 2. NVC 4 levels of communication desire, request
5 <sup>th</sup>	1. Human body and development 2.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3. Empathy
6 <sup>th</sup>	1.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 Value verification and audit
7 <sup>th</sup>	Offline NVC training

장과 성행위 및 성 정체감, 비폭력대화의 공감하기 파트로 구성되었다. 6회기에는 포괄적 성교육의 성 및 생식 건강, 비폭력대화의 가치 확인과 감사로 구성하였다. 구성한 총 6회기의 프로그램은 웹기반 프로그램 중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카드뉴스의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과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의 실습 위주의 학습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제목은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이라 하였다 (Table 1).

(2)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평가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있어서는 CVI 값을 활용하여 전문가 5인에게 프로그램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교육센터 장, 보건교사,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대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전문가 타당도는 연구의 목적, 대상, 교육 실행, 전체 내용과 흐름, 연구실행의 5문항으로 구성하여 관련 없음, 조금 관련 있음, 상당히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의 측정항목으로 관련 없음과 조금 관련 있음은 0점, 상당히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의 1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값은 0.96으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웹 기반 재생산

웹 기반 프로그램 중 가장 최근 쉬운 전달 효과를 기대하는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 총 6회기의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4) 예비조사

동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연인 3쌍에게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메신저로 보내 프로그램 구성과 흐름, 지식, 내용의 이해, 내용의 활용도, 전달 매체의 효율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 결과 1차 제작한 카드뉴스 동영상 프로그램이 한 회기당 글자 수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며 시간이 10분 소요로 길어 지속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응답이 나왔다. 최종 수정된 내용은 한 회기당 프로그램의 세분화를 하여 한 회기 당 3~4편으로 늘려 재편성하였다.

4) 실행(Implementation) 및 평가(Evaluation)

ADDIE 모형에 의한 실행 및 평가는 본 연구의 중재이므로 다음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후 확인하였다.

6.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중재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실험군 13쌍에게 총 6회기의 연

인 간 포괄적성교육 카드뉴스 동영상을 4일 간격 SNS 메신저로 한 회기 당 첨부 설명과 함께 보내었고 SNS 메신저 피드백을 받았다. SNS 동영상 프로그램 제공 후 마지막 비폭력대화 실습 위주의 1회 강의실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졌다. 반면 대조군 11쌍의 연인에게는 기존에 고등 교과 과정에 수록되어있는 성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절제중심 성교육 위주의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든 절제중심 카드뉴스 동영상과 첨부 설명을 SNS로 보낸 후 SNS 메신저로 피드백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K대학 서울캠퍼스의 교내 각 게시판의 전단지과 교내 홍보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연구자가 속해있는 종합 병원 내 커플 유지중인 직원 대상으로 홍보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20-30대 혼전 연인을 모집 후 연구 참여 허락한 서울 소재 K대 학생과 연구자가 속해있는 종합 병원 내 직원 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실험군 13쌍에게 7회의 연인 간 포괄적성교육을 대조군 11쌍에게 기존의 우리나라 성은 회피와 절제하는 것이라고 교육하는 중,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된 절제중심 성교육 카드뉴스를 만들어 제공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연인에게 프로그램 중재 전 참여 동의서와 측정도구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중재 프로그램은 총 7회로 구성된 6회기 카드뉴스 동영상과 비폭력대화의 활동 중심인 1회의 오프라인 수업을 포함하여 2019년 9월 16부터 10월 11까지 4일 간격으로 한 회기씩 SNS 메신저로 보내어 피드백을 받았다. 2019년 10월 14일 1회의 오프라인 수업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중재 전 작성한 동일한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11쌍에게는 실험 전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 작성을 받은 후 실험군과 같은 기간 동안 1회의 절제중심 성교육 카드뉴스 동영상을 SNS 메신저로 제공 후 동일한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7.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 2)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hapiro-Wilk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인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기존의 절제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대조군의 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 검사의 차이검증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24명(50.0%)이었고, 평균 연령은 27.06±2.09세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외가 38명(79.1%), ‘학생’이 10명(20.8%)이었다. 평균 연인과 의 교제기간은 2.86±1.63년으로 확인되었다.

###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모두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W=954\sim987$ ,  $p=.057\sim.862$ ), 실험 전 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of Main Variables

Variables	Exp. (N=26)		Cont. (N=22)		t	p
	M±SD		M±SD			
Age (yr)	26.77± 2.24		27.36± 1.76		-0.95	.344
Job	Student	5 19.2 (%)	5 22.7 (%)		0.08	.766
	Non-student	21 80.8 (%)	17 77.3 (%)			
Dating period (yr)	2.82± 1.63		2.90± 1.63		-0.16	.873
Sex communication	15.04± 6.65		14.09± 5.05		0.54	.58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10.38± 5.32		10.50± 3.10		-0.09	.926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106.42± 24.65		115.86± 12.30		-1.71	.094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Relational efficacy	28.35± 7.80	31.50± 3.64		-1.83	.074
	Relational behavior	30.42± 8.04	33.77± 4.57		-1.80	.078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22.15± 5.74	24.18± 3.51		-1.44	.156
	Relieving anxiety	25.50± 5.85	26.41± 4.74		-0.58	.56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the Treatment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ost-Pre test)	t	p	
		M±SD	M±SD	M±SD			
Sex communication	Exp. (N=26)	15.04± 6.65	22.92± 4.24	7.88± 5.41	7.51	<.001	
	Cont. (N=22)	14.09± 5.05	13.41± 5.15	-0.68± 1.96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Exp. (N=26)	10.38± 5.32	3.46± 3.00	-6.92± 5.97	-5.85	<.001	
	Cont. (N=22)	10.50± 3.10	11.00± 3.16	0.50± 2.30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Exp. (N=26)	106.42± 24.65	136.23± 12.64	29.81± 25.10	6.02	<.001	
	Cont. (N=22)	115.86± 12.30	115.41± 11.75	-0.45± 4.60			
Love relationship competence	Relational efficacy	Exp. (N=26)	28.35± 7.80	36.88± 4.25	8.54± 7.64	5.21	<.001
		Cont. (N=22)	31.50± 3.64	31.95± 4.50	0.45± 1.84		
	Relational behavior	Exp. (N=26)	30.42± 8.04	39.50± 3.40	9.08± 8.31	5.58	<.001
		Cont. (N=22)	33.77± 4.57	33.59± 3.94	-0.18± 1.47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Exp. (N=26)	22.15± 5.74	28.04± 4.04	5.88± 6.26	4.89	<.001	
	Cont. (N=22)	24.18± 3.51	23.95± 3.03	-0.23± 1.11			
Relieving anxiety	Exp. (N=26)	25.50± 5.85	31.81± 3.25	6.31± 5.92	5.43	<.001	
	Cont. (N=22)	26.41± 4.74	25.91± 4.78	-0.50± 2.2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전후 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의 점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실험 전·후 차이 값에 대한 그룹 간 차이검정에서 성 의사소통은 실험군(7.88±5.41)은 실험 후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이 향상되었으나, 대조군(-0.68±1.96)은 실험 실시 후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이 감소하였고( $t=7.51, p<.001$ ),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실험군(-6.92±5.97)은 실험 후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감소하였으나, 대조군(0.50±2.30)은 실험 후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이 더 높아졌다( $t=-5.85, p<.001$ ). 연인관계 유능성은 실험군(29.81±25.10)은 실험 후 연인관계 유능성이 향상되었고, 대조군(-0.45±4.60)은 실험 후 연인관계 유능성이 감소하였다( $t=6.02, p<.001$ ). 세부적으로 관계효능감( $t=5.21, p<.001$ ), 관계유지행동( $t=5.58, p<.001$ ), 갈등관리행동( $t=4.89, p<.001$ ), 불안감해소( $t=5.43, p<.001$ ) 모두에서 실험군의 실험 후 상승 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able 3).

## 논 의

###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설계과정에서 학습자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유지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 ADDIE 모형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분석 단계에서 내용 구성을 위하여 기존 성교육자료와 포괄적 성교육자료,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선행연구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혼전 연인관계의 발전을 위해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선택하였다. Huberland의 연구에 따르면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별 및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22]. 유럽본부에서도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정하여 유럽 국가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대신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추진 중이다[23]. Herat은 UNESCO 포괄적성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 정책, 자금 지원 및 실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회와 파트너십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하였다[24]. 미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가나, 페루, 과테말라 등의 나라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을 공공정책으로 활용할 만큼 검증받은 프로그램이며[9-11, 25], 따라서 연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포괄적

성교육에 비폭력 대화모델을 융합하였다. 과학과 공학 중심의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인문 예술 계열로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성을 바라봄으로써 성의 본질적 고찰을 통한 다양한 견문 확장을 목적으로 성을 주제로 한 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 김예진[26]의 제언을 충족시켰다. UNESCO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시기와 형태의 친밀한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 이 선택은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성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시킨다. 이는 본 연구 프로그램이 포괄적 성교육에 비폭력대화 모델을 융합하여 연인 간 성(sex)적 관계는 물론 비폭력대화를 통한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의 관계 형성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행위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웹 기반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시행된 요구도 조사에서 도출한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매 주마다 강의실을 찾아 교육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과를 참고하였다. 웹기반 성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의 민감성으로 인해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거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궁금한 점이 있어 교육을 다시 받고 싶더라도 재참여가 쉽지 않은 기존의 강의식 성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웹기반 교육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의 교육 수준을 재차 점검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교육이 가능하다[21]. 20-30대는 교수자에 비해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기 사용이나 활용에 있어 더 수월하며, 특정 요구에 맞게 디지털 도입을 조절할 수 있고 휴대전화는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인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 기반 전달체계를 통해 학습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재학습이 가능하도록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웹기반의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합하였다. 이는 비폭력대화 모델의 도입에 있어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은 실습위주의 환경을 중요시 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의 웹기반 위주의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비폭력대화의 실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웹기반 학습 후 비폭력대화 실습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연인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2) 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비폭력대화 모델을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개발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



군에 비해 성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이 향상되었다.

첫째, 연인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실험군이 절제중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성 의사소통 점수 차이가 높았다. 이는 대상이 부모 자녀이긴 하지만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절제중심 성교육을 받은 대조군을 비교하여 성 의사소통의 유의한 점수 차이를 확인한 Burgess의 연구[27]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이 연인 간의 성 의사소통 향상에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의 실험 전후 점수 차이는 절제중심 성교육을 제공한 대조군의 실험 전후 점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차이는 있으나 절제중심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적 및 생식 보건 및 권리에 비효율적임 확인한 Heels의 연구 결과[28]와 절제중심 프로그램이 십대 임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을 확인한 Stanger-Hall의 연구 결과[29]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절제중심 성교육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금욕은 임신 성병 및 HIV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대다수의 젊은 층에서 금욕만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과 포괄적 성교육은 젊은이들의 여러 연령대의 성적 표현의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한다[8]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 의사소통의 유의한 점수변화 결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연인 간 다양한 성적 표현이 가능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내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고 본 연구에서 성 의사소통 측정도구로의 결과 도출만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선부른 판단이라고 본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는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연인의 문제해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정서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면서 열망·욕구 의식에 의한 표현방법과 공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4단계 표현을 통한 일차적인 자기표현법으로 자신의 관점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인 대상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 불만족 점수가 낮아진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4].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연인 간 사소한 의견 차이에 대한 합의 능력 향상과 과민 반응, 예민한 문제에 대해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연인 간 불만족을 줄임으로써 연인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비폭력대화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검증하였지만 비폭력 대화 중재만으로도 연인 간 문제해결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포괄적성교육이 연인 간 문제해결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불명확하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연인관계 유능성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혼전 연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연인 간의 점수 차이를 고찰한 경우가 없어, 기존연구와 본 변인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아직까지 국내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탐색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연인 대상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의 탐색에 있어 초기 중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인관계 유능성은 일종의 관계기술로 노력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17]. Pond의 선행연구에서 성교육 학습자는 신체적인 성관계에 상관없이 관계와 느낌, 성적친밀감을 포함한 존중과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대인 관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UNESCO 포괄적 성교육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보다 안전한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30]. UNESCO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시킨 본 연구의 중재인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프로그램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성적친밀감을 포함한 존중과 의사소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어 연인관계 유능성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대상자가 서울 소재 27쌍의 미혼 연인에 국한되므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서울 외 지역의 대상자를 포함시켜 대상자 수를 증가시킨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연인관계 유지에 있어서 추적관찰이 필요하나 프로그램 적용 직후 결과만을 도출하였다. 연구기간을 늘려 연인관계 향상과 유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제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단계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찾은 결과 UNESCO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절제중심 성교육이 우리나라 현실적용에 적합하지 선행연구 또한 찾지 못하였다. 절제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중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한 1회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비교에 있어서 비슷한 시간과 분량으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절제중심 성교육이 연인관계에 도움이 되는지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프

로그램의 목적은 미혼 20-30대의 연인관계의 향상과 유지이다. 미혼 연인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데이트폭력의 근절과 발전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비폭력 대화 모델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성 의사소통의 향상, 문제해결의 의사소통 및 연인관계 유능성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혼전 연인을 대상으로 연인관계 향상을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과 비폭력대화 모델과 같은 대화 중재를 융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강의실 등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의 접근으로 제공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외의 경우,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연구 진행도 미진하며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검증된 가이드라인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국외에서 이미 수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확보를 해온 포괄적 성교육의 우리나라의 도입에 있어서 하나의 시도이다. 반복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측정했으므로 프로그램 적용 후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 중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연인 간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은 카드뉴스 동영상에 한하여 제작되었다.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많은 교육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웹 기반 제작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 프로그램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에 있어 처음 진행된 연구이다.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이 타당한지의 여부확인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ORCID

Kang, Hyun Jin <https://orcid.org/0000-0001-6451-3524>

Kim, Ju Hee <https://orcid.org/0000-0001-6586-7244>

### REFERENCES

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Violence" is not "love."-The National Police Agency runs a "date violence reporting period" for two months [Internet]. nulimang (Korea):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cited 2020 May 18]. Available from: [https://www.police.go.kr/files/B0000011/201906/BBS\\_201906280200081791.hwp](https://www.police.go.kr/files/B0000011/201906/BBS_201906280200081791.hwp)
2.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ate violence report period (July to August) Operation Results [Internet]. nulimang (Korea):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cited 2020 May 18]. Available from: [https://www.police.go.kr/files/B0000011/201909/BBS\\_201909060923264161.hwp](https://www.police.go.kr/files/B0000011/201909/BBS_201909060923264161.hwp)
3. Park AC. A Review of Erikson's developmental frame-works on human develop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07;26(2):143-63.
4. Huh NS. A study on countermeasures and treatment techniques for wife beating. *Comparative Social Welfare*. 1993;2:277-320.
5. Eom HJ, Lee JW. Online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1;19(1):127-50.
6. Cha J, Kim S.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29(2):272-84. <https://doi.org/10.5932/JKPHN.2015.29.2.272>
7. Shin YH, Chun YK, Cho SM, Cho YR. The effects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7):1304-13. <https://doi.org/10.4040/jkan.2005.35.7.1304>
8.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cited 2018 May 5].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adolescence/comprehensive-sexuality-education/en/>
9. Kramer AS. Framing the debate: the status of US sex education policy and the dual narratives of abstinence-only versus comprehensive sex education policy. *American Journal of Sexuality Education*. 2019;14(4):490-513. <https://doi.org/10.1080/15546128.2019.1600447>
10. Keogh SC, Stillman M, Awusabo-Asare K, E Sidze E, Monzon A, Motta A, et al. Challenges to implementing national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urricula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case studies of Ghana, Kenya, Peru and Guatemala. *PLOS ONE*. 2018;13(7):e0200513. <http://doi.org/10.1371/journal.pone.0200513>
11. Huaynoca S, Chandra-Mouli V, Yaqub Jr N, Marie Denno D. Scaling up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in Nigeria: from national policy to nationwide application. *Sex Education: Sexuality, Society and Learning*. 2014;14(2):191-209. <https://doi.org/10.1080/14681811.2013.856292>
12. Rosenberg MB. Nonviolent communication-a language of life. 21th ed. Singer K. Korean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 Korean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 2016. pp. 21-3.
13. Yang JW, Kim S. Integrative review of nonviolent communication intervention studi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6;13(1):36-47. <https://doi.org/10.16952/pns.2016.13.1.36>
14. Lee HJ, Kim SO.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n experiential couple group therapy program: integration of the Satir growth model and non-violent communic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2):831-54.
15. Hutchinson MK, Cooney TM. Patterns of parent-teen sexual risk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1998;47

- (2):185-94. <https://www.jstor.org/stable/585623>
16. Cho SH.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reciprocal relationships [dissertation]. Seoul: Myongji University; 2012.
  17. Kim KM. The relation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omantic compet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6): 135-47. <https://doi.org/10.5392/JKCA.2019.19.06.135>
  18. Branch RM. *Instructional design: the ADDIE approach* [Internet]. Springer-verlag: Springer US; 2009 [cited 2018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springer.com/gp/book/9780387095059>
  19. Long Live Love. Long live love the six lessons [Internet]. Nederland: Lang Leve de Liefde; 2018 [cited 2018 May 3]. Available from: <https://langlevedeliefde.nl/docenten/english>
  20. Simon L, Daneback K. Adolescents' use of the Internet for sex education: a thematic and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2013;25(4):305-19. <https://doi.org/10.1080/19317611.2013.823899>
  21. Shin KR, Park HJ, Hong CM.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0; 22(4):448-56.
  22. Haberland N, Rogow D. Sexuality education: emerging trends in evidence and practi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5;56(1):S15-21.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4.08.013>
  23. Ketting E, Winkelmann C. New approaches to sexuality education and underlying paradigms. *Bundesgesundheitsblatt-Gesundheitsforschung-Gesundheitsschutz*. 2013;56(6):250-5. <https://doi.org/10.1007/s00103-012-1599-8>
  24. Herat J, Plesons M, Castle C, Babb J, Chandra-Mouli V. The revised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a powerful tool at an important crossroads for sexuality education. *Reproductive Health*. 2018;15(1):185. <https://doi.org/10.1186/s12978-018-0629-x>
  25. Robinson DB, V MacLaughlin V. Sexual health education outcomes within Canada's elementary health education curricula: a summary and analysi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9;28(3):243-56. <https://doi.org/10.3138/cjhs.2018-0036>
  26. Kim YJ.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values of convergence education with study of sex. *Convergence Education Review*. 2017;3:53-61.
  27. Burgess V, Dziegielewski SF, Green CE. Improving comfort about sex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practice-based research within a teen sexuality group.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2005;5(4):379-90. [https://triggered.edina.clockss.org/ServeContent?rft\\_id=info:doi/10.1093/brief-treatment/mhi023](https://triggered.edina.clockss.org/ServeContent?rft_id=info:doi/10.1093/brief-treatment/mhi023)
  28. Heels SW. The impact of abstinence-only sex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on adolescent sexual outcomes. *Perspectives*. 2019;11(1):3. <https://scholars.unh.edu/perspectives/vol11/iss1/3>
  29. Stanger-Hall KF, Hall DW. Abstinence-only education and teen pregnancy rates: why we need comprehensive sex education in the U.S. *PLOS ONE*. 2011;6(10):e24658. <http://doi.org/10.1371/journal.pone.0024658>
  30. Pound P, Langford R, Campbell R. What do young people think about their school-based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a qualitative synthesis of young people's views and experiences. *British Medical Journal Open*. 2016;6(9):e011329. <http://dx.doi.org/10.1136/bmjopen-2016-011329>